

정부가 3% 적자률을 폐기하고 '新 재정준칙'을 만든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.

<보도내용>

- 2025.10.12.(일) 서울경제는 「3% 적자률' 폐기...저성장 반영한 '新 재정준칙' 만든다」 제하의 기사에서,
 - “정부가 신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. 기존 기준인 ‘관리재정수지 적자 국내총생산(GDP) 3% 이내’ 규정을 폐기하고 ‘통합재정수지’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규칙을 만드는 것이 골자다”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재정부 입장>

- 정부가 기존 기준인 관리재정수지 적자 GDP 3% 이내 규정을 폐기하고, 통합재정수지를 중심으로 한 완화된 재정준칙 마련에 착수했다는 상기 보도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리니 보도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담당 부서	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	책임자	과 장	황희정 (044-215-5740)
		담당자	사무관	김진영 (jeanghim@korea.kr)